

마을 안에 들어온 세계

이 용 근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 다문화사회 진입 속도 세계 1위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6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의 영향도 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वाद도 무관하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176만명에 이른다. 통계가 시작된 2006년에 54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10년새 3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주민 인구 증가율은 단연 세계 1위다. 전쟁이나 천재지변도 없이 인구 구성이 이렇게 급변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10년새 다문화 수용성이 3배 늘어났을까’ 물어보면 결코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만 온전히 맡겨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함께 따랐을 때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제1의 이주민 도시’ 로 나아가는 화성시

전체 주민의 7.4%가 외국인주민인 화성시는 이제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이주민이 많은 ‘제2의 이주민 도시’가 되었다. 양감면의 경우 66%에 이르러, 세명의 주민 중 2명이 이주민이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국경없는 마을’이 있는 안산시가 명실상부한 제1의 이주민 도시라면, 안산시의 포화상태로 인해 그 주변인 시흥시와 수원시, 그리고 화성시가 제2의 이주민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화성시가 전국 제1의 이주민 도시라 할만한 특징이 있다. 이주민이 많은 다른 지역들은 이주민 밀집주거지역이 있다는 점과 중국(한국계 포함) 이주민이 무척 많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화성시는 특정한 이주민 밀집주거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주민 비율이 높은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또한 다른 이주민 도시에 비해 중국 이주민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대신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주요 국적별 이주민 인구 전국 순위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순위	중국(한국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1	영등포구 39,120	화성시 7,449	창원시 4,079	화성시 2,643	화성시 2,286	화성시 2,018	화성시 2,289
2	안산시 36,203	포천시 3,123	화성시 4,048	안산시 1,476	이천시 1,514	김해시 1,828	김포시 1,177
3	구로구 32,997	김포시 2,952	김해시 3,746	김해시 1,465	포천시 1,451	안산시 1,459	포천시 1,148
4	수원시 28,915	파주시 2,488	시흥시 2,848	포천시 1,396	김포시 1,278	창원시 1,322	양주시 946
5	시흥시 23,406	인천 서구 2,208	안산시 2,422	김포시 1,373	광주시 1,243	김포시 1,131	김해시 878
6	금천구 20,590	양주시 1,955	경주시 2,109	평택시 1,240	김해시 1,161	통영시 1,083	거제시 874
7	관악구 16,516	김해시 1,915	천안시 1,805	광주시 1,228	천안시 990	남동구 1,034	안산시 800
8	부천시 15,978	천안시 1,906	남동구 1,773	남동구 1,215	용인시 908	시흥시 999	천안시 749
9	성남시 12,900	광주시 1,901	김포시 1,740	파주시 1,164	논산시 885	제주시 890	평택시 727
10	화성시 10,175	평택시 1,880	경산시 1,709	인천 서구 1,053	파주시 859	달서구 882	아산시 712
	전체 490,000	전체 82,225	전체 133,106	전체 51,808	전체 44,358	전체 41,656	전체 32,413

순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한국계)
1	화성시 1,498	화성시 1,266	화성시 1,233	안산시 472	화성시 950	안산시 6,025	안산시 2,489
2	김포시 1,411	김해시 1,255	포천시 1,177	수원시 457	중랑구 946	김해시 2,214	연수구 647
3	포천시 1,008	김포시 880	김포시 890	달서구 389	성북구 920	아산시 1,924	아산시 635
4	김해시 676	완도군 687	광주시 597	화성시 372	동대문구 908	광안구 1,764	경주시 463
5	인천 서구 638	포천시 681	양주시 595	인천 서구 356	김포시 714	화성시 1,677	청주시 454
6	시흥시 602	거제시 665	안산시 529	김해시 343	광주시 685	거제시 1,406	광안구 441
7	광주시 587	울산 동구 595	시흥시 513	용산구 320	전주시 573	창원시 1,301	김해시 394
8	남동구 524	진도군 575	인천 서구 477	김포시 285	용인시 553	경주시 1,288	안성시 361
9	거제시 470	음성군 574	남동구 416	창원시 268	청주시 519	연수구 1,189	화성시 345
10	용인시 428	안산시 540	남양주시 416	경산시 241	고양시 506	청주시 1,157	천안시 320
	전체 21,327	전체 26,735	전체 15,051	전체 11,200	전체 26,120	전체 45,670	전체 10,952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태국인이 8만2천여명 되는데, 그 중 7천5백명 정도가 화

성시에 거주한다. 전체 태국인의 10%에 육박한다. 필리핀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도 화성시이고, 네팔인, 캄보디아인, 인도네시아인, 미얀마인, 스리랑카인, 방글라데시인, 몽골인 등 주요 9개 나라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바로 화성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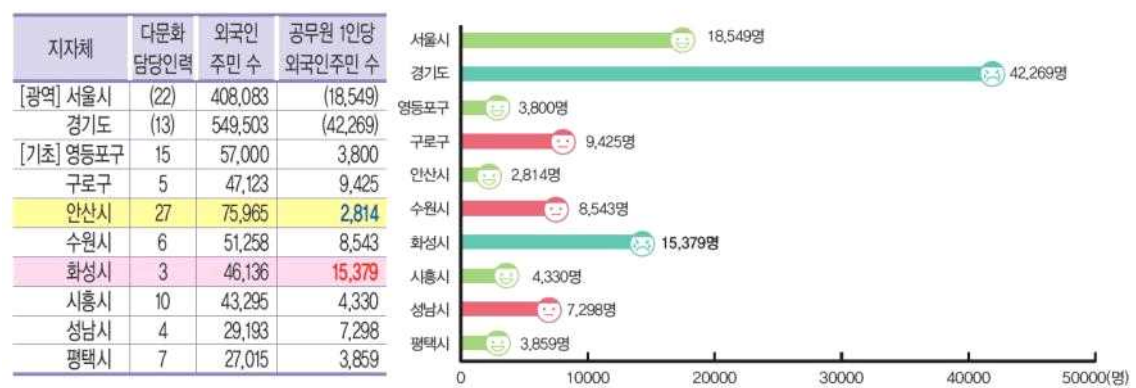
이처럼 실제 내용에 있어서 안산시를 뛰어넘는 사실상 ‘제1의 이주민 도시’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마을은 작은 세계이며, 지구마을은 내가 사는 큰 터전이 되었다.

○ 아직은 갈 길 먼 사회적 배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이주민 도시화가 진행됨에 반해 행정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주민 8만명인 안산시는 ‘국’ 체제에 공무원만도 27명이나 되고, 이주민 4만명인 시흥시 역시 ‘과’ 체제에 공무원 수도 10명이나 되는데 반해 이주민 5만명인 화성시는 여전히 ‘팀’ 체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화성시 다문화 담당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외국인주민 수가 무려 1만5천명이 넘는다. 1명의 공무원이 2천8백명의 외국인주민을 감당하는 안산시와는 비교조차 안된다.

각 도시의 다문화/이주민 담당 인력 비교



출처 : 2017 화성시 조사연구 용역보고서

시립도서관 다문화 도서 비율

도서관	2016.12.31. 장서수				
	전체	다문화도서 수(비율)	서양서 수(비율)		
동탄북합	148,937	3,060 2.1%	7,425 5.0%		
병점	134,921	2,453 1.8%	8,652 6.4%		
봉담	96,066	2,835 3.0%	5,986 6.2%		
삼곡	103,449	1,486 1.4%	5,694 5.5%		
송산	58,940	2,104 3.6%	4,231 7.2%		
남양	156,527	1,137 0.7%	4,339 2.8%		
태안	120,272	1,090 0.9%	5,218 4.3%		
정남	30,062	962 3.2%	2,133 7.1%		
진안	42,170	535 1.3%	1,669 4.0%		
동탄중앙이음터	46,723	0 0.0%	2,563 5.5%		
두빛나래어린이	67,456	697 1.0%	9,107 13.5%		
동지나래어린이	66,124	1,245 1.9%	6,870 10.4%		
샘내작은	15,562	0 0.0%	0 0.0%		
기아행복작은	11,628	0 0.0%	0 0.0%		
비봉작은	6,287	0 0.0%	0 0.0%		
계	1,105,124	17,604 1.6%	63,887 5.8%		

* 다문화도서 : 영어권 이외 국가 언어로 씌어진 원서

* 서양서 : 영어로 쓰여진 원서

출처 : 화성시립도서관 제출 통계



이주민 7.4%의 도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의 다문화도서 보유율은 2% 남짓이고, 1%에도 못미치는 시립도서관까지 있는걸 보면 여전히 화성시의 이주민 체감 지수는 무척 낮은걸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 5%를 배려하자는 사회적 캠페인이 절실한 때다.